

'보헤미안 랍소디' · '완벽한 타인' 이 이뤄낸 반전



11월 영화산업 결산 여성 관객 티켓 파워 돋보여

전체 52주를 기준으로 11월이 시작되는 44주 차는 2010~2017년까지의 흥행 순위로 보면 40위에 위치한다. 대학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관객이 늘어나지만 52주의 흥행 순위 중 하위권에 위치하게 비수기 시장으로 평가한다. 대학가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 아무래도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 11월은 달랐다. '보헤미안 랍소디'와 '완벽한 타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전통적 비수기인 11월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두 영화가 11월 시장에 활기를 넣으면

서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는 30.3% 증가했고, 매출액은 39.5% 늘어나는 이례적 환경을 만들어 냈다.

▲ 쌍끌이 흥행에 비수기 무색

영화진흥위원회가 12일 발표한 11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한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8만 명 늘어나며 27.7%의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은 185억 원이 늘어나며 37.1% 증가했다. 외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21만 명이 늘었고 증가율은 32.9%였다. 매출액은 41.7%가 상승했다.

11월 전체 관객은 모두 1715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9만 명 증가한 것이고, 최근 5년 동안의 11월 평균 관객 수인 1469만 명보다 246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적으로 '보헤미안 랍소디'와 '완벽한 타인'이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덕분이었다. 두 영화는 11월 한 달간 각각 531만 명과 473만 명을 동원하며, 비수기를 무색하게 만든 반전 흥행의 주역이 됐다.

12월 12일 현재 '보헤미안 랍소디'는 730만 관객을 넘어섰고, '완벽한 타인'은 524만 관객을 기록하

고 있다.

같은 날 또는 같은 주에 개봉한 2편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이른바 쌍끌이 흥행은 주로 성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별했다. 관객이 급증하는 성수기는 극장가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작들이 동 시기 개봉하는 것에 따른 위험요소가 크지 않다.

그런데 성수기가 아닌 가을 비수기에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나타나면서 비수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다.

'보헤미안 랍소디'와 '완벽한 타인' 뿐 아니라 지난 10월 3일 동시 개봉한 '베놈'(누적 388만 명)과 '암수살인'(누적 376만 명)까지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성수기 중 하나인 추석 시장에서 대부분 영화들이 손이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참패한 가운데 비수기에 영화들이 흥행해 성수기의 부진을 메우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9월 성수기인 추석 시장의 부진을 11월 비수기가 만회한 셈이 됐다. 두 달 연속 쌍끌이 흥행이 극장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 여성 관객 힘과 여성캐릭터의 선전

영진위는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보헤미안 랍소디'는 지난 12월 2일 집계 기준으로 북미와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관객이 선호하는 실화 영화이자 음악 영화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록그룹 퀸에 대한 향수를 지닌 중장년층 여성 관객이 초반 흥행을 견인하고, 이후에 빠른 입소문을 바탕으로 20대~30대 관객층이 합류하며 박스오피스 여주행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11월 실적에 마음 졸이던 극장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소 짓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CGV 미디어포럼에서도 CGV 측은 "'보헤미안 랍소디'가 기존 흥행 공식을 모두 무너뜨렸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특화된 상품과 입소문에 따른 팬덤 현상이 작용했다는 게 CGV의 결론이었다.

CGV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 회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 '싱어롱' 상영의 경우 객석의 80%가, 스크린X의 경우 61.3%가 됐다. 연 5회 미만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유입도 최상위권에 속했다. 국

장을 자주 찾지 않는 관객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다.

흥행분석가인 이하영 전 시네마 서비스 이사는 "최근 몇 년 사이 11월과 12월 초가 좋은 시장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시장이 활기를 띄었다"며 "한국영화의 선진도 있지만 그 보다는 '보헤미안 랍소디'의 힘이 시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또한 "한국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던 '완벽한 타인'의 경우는 근래의 주류 코미디가 남성 서사였던 것과 달리 이 영화는 '여성'과 '감성'을 부각시켰고, 이에 화답한 여성 관객층의 지지가 흥행의 밑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부도의 날' 역시 여성 캐릭터가 극을 이끄는 영화"라며 "올 가을 비수기에는 여성 캐릭터 비중이 큰 한국영화가 여성 관객층의 지지를 얻으며 선전했고, 여성 관객층의 티켓 파워가 돋보였던 11월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개봉영화들은 그간 남성에게 밀렸던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양상이다.

저예산 영화 '미스백'의 한지민부터 최근 개봉한 '도어락'의 공효진까지 여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선 작품들의 흥행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2018 KBS 가요대축제' 2차 라인업 공개

'2018 KBS 가요대축제' 2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공개된 2차 라인업은 엑소(EXO), 트와이스 AOA, 빅스, 뉴이스트 W, 갯세븐(GOT7), 몬스타엑스, NCT 127, 용준형, 십센치(10cm), 로이킴, 러블리즈 모모랜드 등 총 13개 팀으로 2018년 가요계를 결산하며 관타스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먼저 '퀀터플 밀리언셀러' 대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인기질주를 이어가는 엑소(EXO), 발매하는 곡마다 대박을 터

뜨리며 10연속 히트에 성공한 트와이스, '빙글빙글'로 여름을 뜨겁게 달군 AOA 등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POP 스타들의 출연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데세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대거 출연한다. 매 앨범마다 파격적인 컨셉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컨셉의 신(신)' 빅스, 강렬한 카리스마와 칼군무로 무장한 뉴이스트 W, 훈훈하고 세련된 비주얼로 국내?의 인기몰이 중인 GOT7, 최근 '뮤직뱅크 1

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몬스타엑스, K-팝 센세이션'으로 불리는 NCT 127 등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너육이 '뽀뽀'로 정순권'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러블리즈, 올해 '뽀뽀'와 'BAAM(배엠)'으로 2연속 메가히트를 기록한 모모랜드까지 총출동해 숨 막히는 매력 대결을 펼친다.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 밤, 여심을 사로잡는 꿀보이스를 장착한 남자 솔로 가수들의 출연도 눈길



을 끈다. 부드러운 남성미로 첫 솔로 정규 앨범에 성공한 용준형, '날

대를 수직 상승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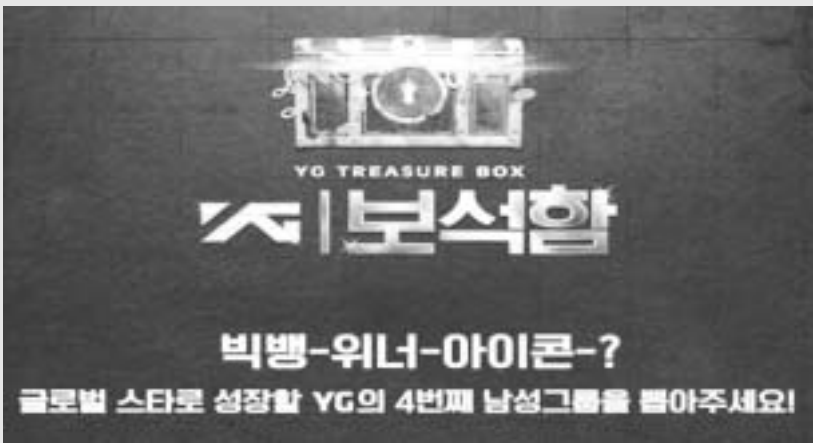
연일 초특급 라인업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가요대축제'는 올 한 해를 빛낸 가수들이 총출동해 연말을 화려하고 특별하게 마무리하는 축제 중의 축제. 특히 오는 28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방송되는 '2018 KBS 가요대축제'는 '대 환상 파티'라는 주제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롭고 유니크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방탄소년단, 워너원, 레드벨벳, 세븐틴, 여자친구, 비투비(BTOB), 에이핑크, 황지열, 선미, 청하, 노라조, 오마이걸, (여자)아이들의 1차 라인업과 더불어 엑소(EXO), 트와이스 AOA, 빅스, 뉴이스트 W, 갯세븐(GOT7), 몬스타엑스, NCT 127, 용준형, 십센치(10cm), 로이킴, 러블리즈, 모모랜드의 2차 라인업까지 화려한 출연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높이며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를 달구고 있다.

제작진은 "올해 가요계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타 파워를 보여준 해였던 만큼 의미 있는 가요대축제가 될 것이다"라며 "KBS 가요대축제는 매해 알찬 구성과 다양한 볼거리로 화제를 모아왔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치러질 '대 환상 파티' KBS 가요대축제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2018 KBS 가요대축제'는 28일 저녁 8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며 KBS 2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YG보석함', 보이그룹 이어 새 걸그룹 내년초 런칭



'YG보석함'이 또 한번 열린다. 블랙핑크의 뒤를 잇는 YG의 새 걸

그룹이 내년 탄생한다.

최근 YG는 새로운 보이그룹 데뷔를 위한 신인 런칭 서바이벌 프로그램 'YG보석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빅뱅, 워너, 아이콘의 다음 잇는 YG 보이그룹이 내년 초 나오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신인 걸그룹 런칭 서바이벌이 진행된다.

13일 복수의 가요·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YG는 내년 1~2월께 신인 걸그룹 런칭 서바이벌을 시작한다. 현재 열리고 있는 'YG보석함' 보이그룹 편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YG보석함 걸그룹 편이 진행될 계획이다.

걸그룹 서바이벌도 보이그룹 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송 플랫폼이 아닌 브이라이브와 네이버TV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모바일과 웹에 특화된 콘텐츠로 다가간다는 'YG보석함'의 특징은 걸그룹편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YG보석함 보이그룹 편은 브이라이브(V앱)에 선공개한 후 밤 12시 JTBC2와 유튜브에 동시 공개되는 패턴으로 진행 중이다.

'YG보석함'은 기존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다르게 2년간 쌓아온 YG의 실제 음악 제작 노하우와 내부 시스템을 낱낱이 공개하며 이

들의 탄생 과정을 여과 없이 방영한다는 기획의도 하에 진행 중이다.

현재 보이그룹편이 진행 중인 'YG보석함'은 총 10회 중 4회가 공개됐다. 29명의 연습생이 처음에 참가했고 최종 5인이 선발될 예정인 가운데 치열한 자리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다.

빅뱅 워너, 아이콘에 이어 YG가 4년 만에 선발하는 보이그룹 선발 경쟁 프로그램인 'YG보석함'은 4회만에 340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음력 11월 8일)



▶ 쥐띠 쥐가 봉황이 되는 운을 맞이하는 격. 그러나 지년적이고 까다로움을 버려야 할 때. 2, 5, 7, 9월생 남성은 백지장도 맛 들면 가벼운 법. 어려움이 따르긴 하나 주위의 조력으로 극복하겠. 그, 2, 5, 7, 9월생은 주의해야 할 날. 서쪽에 행운이 있다.



▶ 소띠 바, 오, 7월생은 계획한 힘든 일이 이제 순탄히 풀리겠다. 바쁘다고 바쁜 허리에 실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금전운이 있으니 투자도 좋겠다. 단, 1, 7, 11월생은 꽃이 피다가 갑자기 지는 격이다. 소, 양띠를 가까이하라.



▶ 호랑이띠 음식점에서 조개를 먹다가 진주를 얻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일에서 더 큰 소득을 챙길 수 있다. 범, 뱀, 돼지띠 협조만 얻으면 행운이 따를 듯. 회색으로 단장해볼 것.



▶ 토끼띠 구성에 오를 수 있으니 직장 동료와 다투지 말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알려. 참으면 오히려 도움을 얻겠다. 진실은 통하는 법. 의견이 상충하나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곧 해결될 것이다.



▶ 용띠 아무리 합리화해도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면 억지 밖에 안 된다. 그, 1, 3, 5월생은 순간의 자존심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알라. 3, 5, 12월생은 오후에 주변 사람 덕에 행운이 있겠다. 동업도 길운. 노란색이 힘이 되겠다.



▶ 뱀띠 5, 6, 9월생은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덤벼들면 크게 실망한다. 뒤로 힘껏 당겨 쏘면 더 멀리 날아가는 화살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전진하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 것. 남쪽을 피하라. 상처가 크겠다.



▶ 말띠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 의 존심을 버리라.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는 법. 언행을 조심하자. 8, 9, 10, 11월생은 동, 북쪽에 귀인을 만날 길행이다. 성격이 운명을 지배함을 알 것.



▶ 양띠 3, 8, 11월생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매사가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보험, 도매업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으면 최고의 운. 능력 이상을 자신에게 기대하지 말라. 마음에 부담만 주는구나. 애정은 만사대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원숭이띠 준비도 없이 등산하지만, 길을 잃지 않고 때가 돼 하산하는 격. 뜻한 바가 손조롭게 진행할 징조다. 평온한 날이니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 남쪽 사람과 일하는 것은 별로 성과가 없겠다.



▶ 닭띠 메마른 땅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 운에 잔잔히 단비가 내리는 격이니 사업이 번창할 수. 바, 오, 7월생의 재능은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빛을 발한다. 한층 더 노력하고 화합하라.



▶ 개띠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오후에 좋은 소식이 있겠다. 상대와 언쟁하거나 대립할 수 있으니 참으라.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쥐, 토끼, 말띠에게 도움을 청하라. 2, 3, 5, 6월생은 노란색이 행운의 색. 투자는 성공률 50%.



▶ 돼지띠 한탄만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 시야를 넓게 보라. 찾는 것이 있을 것이다. 노력 없이 결실하지 않는다. 가족이 나만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손가락에 낀 것이 다 보석은 아님을 알 때다. 4, 5, 6월생은 밝은색으로 단장할 것.